

모로코와 알제리의 공업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strialization of Morocco & Algeria

김시경*

目	次
I. 서론	III. 모로코·알제리의 공업화와 무역환경
II. 모로코·알제리 경제의 일반적 개황	IV. 모로코·알제리의 공업화와 투자환경
1. 모로코	V. 결론
2. 알제리	

I. 서론

모로코와 알제리는 지중해에 면한 북아프리카 국가들로서 흔히 ‘마그레브 諸國’이라고도 불리우며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이슬람 국가들이다. 이들 두 나라는 아프리카적이면서도 유럽적인 색채가 강하고 거기다가 중동적 특성을 가진 세 대륙의 교차로와 같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정치형태 및 경제구조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모로코의 경우 오랜 역사와 아프리카대륙 내에서의 중요한 정치적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직 저개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와 7년 간의 무장투쟁을 벌린 결과로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줄곧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고수하다가 1989년 신헌법 채택을 계기로 경제자유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아무튼 모로코와 알제리는 이웃 형제국으로서 협력과 경쟁, 그리고 때로는 반목을 거듭하는 사이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서부사하라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묘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Ⅱ. 모로코 · 알제리경제의 일반적 개황

1. 모로코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입헌 군주국으로서 지리적으로 북쪽에는 지중해, 서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으며 국토면적은 710,850km²이며 인구는 약 3천만명이다. 모로코는 오랜 역사와 아프리카 대륙내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직 저개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모로코 국왕이었던 하산Ⅱ세의 뒤를 이은 모하메드 VI세는 30대라는 젊은 나이로 사회개혁을 서서히 이루어 가고 있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모로코는 과거 하산Ⅱ세에 의하여 철저히 우민화(愚民化)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교통, 통신, 교육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59년 11월 18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제개발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뒤를 이어 왕이 된 모하메드 VI세는 신세대로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부친인 하산Ⅱ세의 통치를 부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개혁을 미루고 인간신격화를 폐지하자니 정치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튼 모로코 경제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나 국제적으로 정치·외교적 영향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미약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모로코의 1인당 GDP는 1,239달러(2000년)이며 실질경제성장률은 같은 해 0.8%로 대단히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실업률은 14.2%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모로코 경제는 물가안정, 외채감소에 따른 정부재정부담 경감 등 일부 거시경제지표는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대금부담 증가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부문에 따라 연도별 톱날형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경제는 GDP의 15~20%, 노동인구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부문에 의해 사실상 주도되고 있어 기후여건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바로 이러한 산업구조가 모로코경제의 지속성장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표 1> 모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실질GDP성장률	%	12.2	-2.2	6.8	-0.7	0.8
GDP	10억달러	36.6	33.4	35.7	35.0	34.2
물가상승률	연평균%	3.0	1.1	2.7	0.7	1.9
상품수출(fob)	백만달러	6,886	7,039	7,144	7,509	7,404
상품수입(fob)	백만달러	9,080	8,903	9,463	9,957	10,647
경상수지	백만달러	-59	-170	-145	-172	-633
총외채	10억달러	21.9	20.2	20.5	19.1	19.2
외환보유고 (금 제외)	백만달러	3,794	3,993	4,435	5,689	4,823
환율(연평균)	Dh : US\$	8.72	9.53	9.60	9.80	10.63

자료 : EIU, Country Report : Morocco, 2001. 8.

모로코정부는 경제개발계획 5개년(2000~2004년)동안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산업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에 대한 과중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비농업부문은 대부분 완만하게나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3년 공기업 민영화법 제정을 통해 공기업중심의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 모로코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 상수도, 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과 비료, 관광 및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을 외국투자가에 개방하였다. 또한 연 20~30억 달러에 달하는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채의 투자전환을 모색하는 등 건전 재정달성을 통해 비농업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를 증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을 제외하고 전체수출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경제성장촉진 및 직업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식품가공, 의류 및 가죽산업 그리고 화학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광업의 경우 인광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모로코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서 6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인광석 및 관련제품은 단일품목으로 모로코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1920년 국유화된 모로코 “인광석공사(O.C.P.)”에서 독점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한편 1999년도 모로코의 산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1차산업(15%), 2차산업(33%), 3차산업(38%)으로 나누어지며 GDP 성장률은 위에서 말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업의존형 경제구조

로 기록이 심한 톱날형 성장률을 나타내었는데 1996년 12.2%, 1997년 -2.2%, 1998년 6.8%, 1999년 -0.7% 그리고 2000년에는 0.8%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모로코경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의 여덟 가지가 있다.

- ① 톱날형 경제성장 : 강수량에 의해 좌우되는 농업중심 경제구조
- ② 중화학 기반취약 : 모로코의 제조업은 섬유, 신발 및 플라스틱산업이 주도함
- ③ 수산자원풍부
- ④ 석유자원 없음
- ⑤ 밀수품 범람
- ⑥ 사회간접자본확충 역점
- ⑦ 얇은 중산층
- ⑧ 관광업과 재외국민송금(유럽에 있는 모로코 노동자)에 의한 무역적자 만회

上記의 특징 중 ⑤번 밀수품 범람은 모로코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서양과 지중해에 3,5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낀 모로코는 海路를 통한 밀수품 유입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되어 국내제조업체의 생산활동위축 및 외국기업의 對 모로코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밀수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가 상당수에 달하고 현재 높은 실업률 때문에 단기적으로 완전 근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알제리

알제리의 공식국명은 알제리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Algeria)으로서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10배에 해당하는 238만km²인데 85%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3,120만명(2000년)이며 1962년 7월 5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고 1인당 GDP는 1,388달러(2000년), 실질경제 성장률은 2.4%(2000년)였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10.6%) 그리고 제조업이 8.9%를 점하고 있다.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표적이다.

알제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 3대 경제대국으로, 시장규모(GDP)와 인구규모(3천만)면에서 마그레브지역 가운데 가장 큰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동-아프리카-EU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시장이다.

한편 알제리는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한 수은(mercury) 생산국으로서 세계공급량의 약 10분의 1을 공급한다.

석유자원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GDP의 30%, 수출소득의 90%, 정부재정수입의 50%),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낙후성, 과중한 외채부담, 높은 실업률, 정치적 불안정과 부정부패 등이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에 의한 사회폭력사태와 정치불안은 투자심리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알제리의 정정불안과 관련하여 군부와 이슬람 과격파 원리주의자들(Islamic Fundamentalism)과의 싸움이 대표적인데 테러리스트들은 알제리의 유전시설들을 파괴하였으며, 외국노동자들을 공격하고 경제파업을 선동하였다.

<표 2> 알제리 경제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1) 풍부한 석유·천연가스 및 同부문의 성장 잠재력 (2)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거시경제지표 개선(2003년 1월 현재) (3) WTO가입추진에 따른 무역자유화 기대효과 (4) 지속적인 경제개혁·개방화 추진 (5) 해외투자유입 증대에 대한 기대감
부정적 요인	(1) 높은 실업률 (2) 과중한 외채부담 (3) 공공부문의 비능률 구조와 부정부패 (4)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에 의한 정치·사회적불안 (5)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낙후성 (6)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치우친 산업구조

자료 : 논문작성자가 직접작성, 2003. 8.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왔으나 1989년 新헌법 채택과 함께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방향은 경제개혁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개혁과정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직문제는 사회적 안정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알제리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빈약한 국내자본을 감안할 때 외국자본의 참여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영기업 민영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인수관련 제반제도의 미비, 경제활동 기반의 취약성과 국내치안불안 등을 이유로 국영기업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복잡하면서도 모순되는 과정이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전환은 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위기, 불안정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폭력의 과정으로서 표

출되었다. 알제리의 경우 특히 1980년대 말에 시작한 개혁적인 경험은 희망하였던 것과는 달리 시장경제체제와 다원론적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정치·경제·사회 및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로 걸었다.¹⁾

결과적으로 경영부실국영기업과 은행의 민영화는 지체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십 만명의 실업자 발생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업률도 활동인구의 30%에 이르며 실업률감소를 위해서는 7~10년 동안 연 6%의 경제성장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유가격상승으로 정부개혁이 느슨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간간부(특히 공무원)의 부족으로 크게 고통받는 상황이 되었다.

1982년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초를 둔 과격파 등장으로 권력투쟁과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여 수십 만명의 알제리 전문인력이 해외로 도피하였다. 이런 가운데 권력층 내에서도 경제개혁의지가 확고하여졌으며 1989년 9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수상을 지낸 Mouloud Hamrouche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민주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계층의 요구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Ⅲ. 모로코·알제리의 공업화와 무역환경

1. 모로코

2000년도 모로코의 교역규모는 수출 74억달러, 수입 107억달러로서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수출품(1999년)으로는 소비재(38.7%), 반제품(18.8%), 식음료 및 담배(18.7%)가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품목(1999년)은 기계 및 장비(25.5%), 소비재(23.0%), 반제품(20.6%)이었다.

1) Ahmed, Dahmani, L'Algerie a l'épreuve, Economie Politique des Reformes 1980-1997, L'Harmattan, Paris, P. 321.

<표 3> 모로코의 교역현황

(단위 : dirham)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5월
수 출	36,546	40,240	41,356	44,652	68,608	72,283	30,100
수 입	65,963	72,869	71,963	74,868	98,675	105,928	48,600
무역수지	-29,417	-32,629	-30,607	-30,216	-30,067	-33,645	-18,500
US\$당 평균환율	9.18	8.52	8.72	9.53	9.60	9.80	10.30

자료 : Bank Al-Maghrib, Annual Report, 2001.

註 : 1달리는 8~10 dirhams 정도임. Bank Al-Maghrib는 모로코 중앙은행.

한편, 2000년도 모로코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프랑스(28.8%), 스페인(10.6%), 영국(8.6%)의 순이었으며 수입국은 프랑스(24.8%), 스페인(10.6%), 영국(6.8%)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000년도에 한국의 對모로코 수출은 8,900만달러였으며 수입은 2,900만달러로 6,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4> 모로코의 국별 교역구조(2000년 기준)

(단위 : %)

수 출		수 입	
프랑스	28.8	프랑스	24.8
스페인	10.6	스페인	10.6
영 국	8.6	영 국	6.8
독 일	6.1	독 일	5.8
인 도	5.0	이탈리아	5.7

자료 : EIU, Country Report : Morocco, 2001. 8.

모로코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완충지대에 있지만 교역의 경우 위의 <표4>에서 확인하였듯이 유럽이 절대적이다. 모로코는 1976년 당시의 유럽공동체(EC로서 현재는 유럽연합, 즉 EU임)와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對유럽시장 수출에 있어서 무역상의 특혜를 받아왔다.

모로코는 수입의 경우 일부품목에 대해 요구하는 면장, 수입관세, 수입부가세와 같은 몇 가지 조치들에 의해 국내생산을 보호하는 한편, 특정한 자국생산 농산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고관세(수입관세, 수입국고

공제세,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참조가격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참조가격의 주요대상품목에는 고무타이어 및 튜브, 일부 섬유류, 냉장고 및 세탁기, 자동차와 전기계량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로코 무역정책의 특징은 단계적인 수입자유화와 공산품 수출증진 및 특정농산물의 강력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술 및 식료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규제조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재, 사치품, 불요불급품 및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의 부과와 수입대금의 외화배정지연 등을 통한 수입억제정책을 택하고 있다.

아무튼 모로코는 자국산업보호 및 외환관리 차원에서 과다하게 수입규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1983년 IMF의 금융지원에 따른 개혁·개방화정책 이후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매년 수입자유화품목과 사전허가품목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자유화시책으로 자유화율이 90%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하였던 설탕 및 홍차교역규제도 1994년에 완전히 철폐되었다. 또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규제되어왔던 석유제품과 곡물 등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1996년에 단행되었다.

관세율은 1983년 최고 400%에 달하였으나 IMF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최고 35%의 세율(일부 농산품은 제외)이 적용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자유화 차원에서 1993년부터는 IMF 8조를 수용, 모든 경상거래에 모로코 화폐인 dirham화의 태환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모로코 상공부는 경제관련단체들의 의견에 따라 수입관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부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관세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1년 1/4분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7단계의 수입관세율 체계를 4단계로 축소, 통폐합함으로써 세관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수입자유화 확대를 통해 침체된 모로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로코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국내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유럽연합, 즉 EU와 점진적 관세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편 유럽중심으로 되어있는 대외교역구조를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태평양과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996년 2월에 체결된 모로코와 EU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 분야에서 상호협력 동반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력협정이 2000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체결된 협정의 경제분야 즉, 자유교역분야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협정발효일로부터 점진적으로 최대 12년, 다시 말하면 2012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합치하는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EU협력협정은 공산품 수출입시에만 무관

세가 적용된다.

모로코-EU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모로코 공산품 수출업자들에 대해서 EU가 공여하는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무역상의 특혜로부터 상호적인 방향으로의 점진적 이동을 의미한다.²⁾

모로코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EU로부터 수입되는 전 공산품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세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세금의 철폐는 12년간에 걸쳐서 세 가지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행해질 것이며 제품리스트와 조세감면일정은 관련산업부문의 민감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모로코는 유치산업 또는 사회적 및 기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과세조치를 행할 수도 있다. 아무튼 모로코-EU사이의 협정에 의한 교역증진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각자의 GDP성장률에 따른 수입탄력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2. 알제리

알제리는 1994년 IMF체제 돌입을 계기로 대외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대외무역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공공 혹은 민간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알제리에서는 200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5,000개의 민간기업과 300여 개의 공공기업이 대외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알제리는 무역자유화 이전에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을 원칙으로 수입에 할당된 연간예산을 책정하고 수입자격을 공공기업에게만 부여하였다.³⁾

1997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진흥공사(PROMEX)를 설립하였는데 주요업무는 비석유부문의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금융제도의 정비와 수출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수출진흥공사의 운영은 사치품 수입 시에 부과되는 특별세를 기금으로 하고 있다.

2000년도 알제리의 상품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주요수출품으로는 LNG와 가스(29.1%), 원유(22.1%), 원유제품(12.1%) 및 LPG 등이며 수입품은 자본재(34.0%), 식품(28.0%), 반제품(17.8%), 소비재와 원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Larabi Jaidi & Fouad Zaim, L'Industrie marocaine face au défi du libre-echange, Annuaire de l'Afrique du Nord, tome XXXV, CNRS Editions 1996, p. 70.

3) parkyh@kiep.go.kr, 2001. 9, p. 8.

<표 5> 알제리의 상품별 교역구조

수 출			수 입		
주요 수출품	금액(억달러)	구성비(%)	주요 수입품	금액(억달러)	구성비(%)
LNG·가스	35.8	29.1	자 본 재	31.6	34.0
원 유	27.2	22.1	식 품	26.1	28.0
응 축 물	19.3	15.7	반 제 품	16.6	17.8
원유제품	14.9	12.1	소 비 재	14.2	15.3
LPG	4.3	3.5	원 자 재	5.3	5.7
총 수출	123.2	100.0	총 수입	93.1	100.0

자료 : EIU, Country Report : Algeria 2001. 8.

알제리는 원유 및 가스의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외환확보에도 불구하고 식품, 기계류 등의 소비재 및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약간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알제리産 원유는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90%가 EU국가로 수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역시 EU 총 수요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알제리의 주력 수출시장은 이탈리아를 선두로 미국, 프랑스, 스페인이며 수입시장은 과거 식민중주국이었던 프랑스가 30% 전후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표 6> 알제리의 교역상대국

	교 역 상대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 출	이탈리아	20.3	18.7	19.8	22.9	17.8	24.0
	미 국	16.0	15.6	17.6	16.1	16.4	13.0
	프 랑 스	12.8	12.1	14.4	13.9	12.4	13.0
	스 페 인	8.6	8.1	10.3	12.6	10.2	11.0
	합 계	57.7	54.5	62.1	65.5	56.8	61.0
수 입	프 랑 스	30.0	23.6	29.8	32.5	29.8	32.6
	이탈리아	8.3	8.8	9.2	10.8	9.7	9.1
	스 페 인	10.7	11.8	7.8	7.4	5.9	5.8
	미 국	8.1	9.9	9.0	8.0	5.3	-
	합 계	57.1	54.1	55.8	58.7	50.7	-

자료 : EIU, Country Profile : Algeria, 2000. EIU, Country Report : Algeria, 2001. 8.

알제리의 교역상대국은 EU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이웃 마그레브 국가들인 모로코, 튀니지 등과는 교역비중이 1~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알제리는 현재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EU시장에 대한 수출확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수입을 위한 연간예산을 고정시키고, 수입자격을 공기업에만 한정시킴으로써 무역을 국가가 독점하였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함께 1996년 말 대외무역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였으며 1997년 수출진흥공사(PROMEX)를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은 사치성 물품수입에 대한 특별세를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비석유류 부문의 수출증가를 위한 금융상의 혜택도 부여한다. 무역이 비교적 자유로와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수입은 공기업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통제대상이 되고 있다. 알제리는 오랜 사회주의의 타성으로 관청의 권위가 높으며 또한 관료주의의 병폐로 서류처리에 상식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관세제도의 경우 수입상품에 따라 5%~4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완제품, 특히 사치품 등은 정책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10% 선에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끝으로 모로코 및 알제리 무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같은 이웃국가끼리의 횡적무역은 거의 중요성이 없는 반면에 종적무역, 다시 말하면 과거 식민본국이었던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모순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마그레브 국가들 사이의 정치·사회적 유대를 통한 경제협력 증대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통합은 유럽연합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시켜 종국적으로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IV. 모로코 · 알제리의 공업화와 투자환경

1. 모로코

대서양과 지중해에 3,5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낀 모로코는 바다를 통한 밀수품유입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對모로코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모로코 전지역, 특히 스페인 영토인 Ceuta 및 스페인과 인접한 지역에는 밀수에 의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가 상당수에 달하고, 현재 높은 실업률(공식적으로 2000년도에 14.2%였으나 실제로는 약 30%)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면 근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한 극도의 빈부격차로 인한 얇은 중산층구조로 구매력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은 고급브랜드,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산층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고가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모로코는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개방도를 높이고 경제안정을 확고히하여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하였던 1973년 국유화법(Morocanization Law)을 1989년에 폐지하였으며 주요 외환에 대한 자국화폐 dirham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조치를 실시, 금융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금융분야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1995년 10월 3일 25개 조항으로 된 투자법(charte de l'investissement, 법안 제 18-95호)을 의회에서 채택하였는데 同투자법은 외국인의 모로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의 참여,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인 대우,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를 단행하고, 아울러 투자진흥기금(Investment Promotion Fund)과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Office)을 설치하였다. 1992년부터 외국인들은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 관광, 금융, 통신, 수출산업, 부동산, 수산업, 광업 및 수공예 등 여러 분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한편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모로코에서의 외국인 투자로 산출한 소득은 어떠한 사전허가도 받지 않고 금액이나 시기에 제한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대대적인 민영화사업 착수와 함께 전력생산 및 통신서비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허용을 계기로 EU 및 미국 등을 위시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도에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의 기업들에 의한 모로코 투자계획이 계속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로코 자체시장보다는 유럽수출시장 확대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최근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2.2억달러, 1996년 2.4억달러, 1997년 8억달러, 1998년 3.8억달러, 1999년에는 제 2이동통신 사업권 면허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무려 2.5배 증가한 9.5억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3.0%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전년대비 3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는 2000년 12월의 국영통신공사(MT) 지분(35%)매각대금이 2001년도 투자통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도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는 2.08억\$로 전년대비 92%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2001년 프랑스 Vivendi社가 국영통신공사지분 35%를 22억달러에 매입한데 따른 대규모 투자자금 유입에 기인한다.

투자국별로는 프랑스가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영국, 포르투갈 등 EU국가와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포르투갈 등 여타 EU국가들 역시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강화차원에서 에너지, 관광, 정보통신, 전력, 운송 및 수자원 등의 분야에 4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모로코 투자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대규모 직접투자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10년 전부터 수산업, 광업, 수자원과 농촌개발 등에 500만달러 규모의 무상차관을 제공하였다.

모로코의 민영화계획은 수많은 어려움 끝에 1989년 의회의 승인을 거쳐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당시 민영화 대상 114개 공기업 가운데 거의 절반이상을 지분매각 방식 등을 통해 민영화하였다. 나머지 공기업들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로 민영화가 어려움에 봉착하자 1999년 3월 의회에서 민영화법을 수정, 통과시킴으로서 설당공장, 호텔, 은행 등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가시화 되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민영화는 정보통신산업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 알제리

알제리는 1989년 新헌법 채택을 계기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는데 경제자립 및 부강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이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견실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서 1993년 8월 그 동안의 외채 의존적 정책을 지양,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으로서 투자청(APSİ)을 설립하였다.

경제자유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알제리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목적은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 등 경제적 비능률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 및 금융부문 등에서의 외국인 투자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알제리는 공기업매각을 통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1995년 광범위한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여 250개의 공기업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영화 추진 전담을 위하여 국가참여위원회(National Council of State Participations)가 설치되어 자회사설립, 투자 및 자본조달, 금융전략 및 전반적인 구조조정 전략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주요 이유는

빈약한 국내자본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투자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영기업 민영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기업인수관련 제반제도의 미비, 경제활동 기반의 취약성과 치안불안 등을 이유로 알제리 국영기업인수에 냉담한 상황이나 석유개발을 포함한 일부업종에 투자유입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금융업에도 다소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알제리는 1993년 10월 5일 신투자촉진법을 만들었는데 그 기본 정신은 첫째, 기존의 외채의존정책지양 및 외국인 직접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특권부여와 같은 법적조치 둘째, 통제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점진적 전환과 시장경제 기본원칙들이 사회전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었다.

한편 신투자촉진법의 기본원칙은 다음의 일곱 가지가 있다.

- ① 투자자유화
- ② 투자관련 기득권 절대적 보호
- ③ 외국투자 자본과 수익의 이전보장
- ④ 해외투자과 국내민간투자간 구분을 폐지하며 법적으로 동등대우부여
- ⑤ 투자신청심사 소요기간 설정(60일 이내)
- ⑥ 관료주의 병폐타파
- ⑦ 투자관련분쟁시 비거주투자자의 국제중재호소 기회보장

투자인센티브 제도로서는 투자인가일로부터 3년 범위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 및 토지세가 감면되고 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현지조달 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또한 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3%의 할인 관세율이 적용된다.

끝으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외화투자시 투자자본과 투자수익 이전이 가능하며 양도나 회사청산의 경우 회수자본이 첫 투자액수보다 많아졌을 경우에도 자본이전이 가능하다.

알제리는 그동안 경제부실, 교육제도의 불합리성, 노동인구의 증가와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많은 실업자증가로 경제·사회적 안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스 교수는 “자본은 국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자본을 절약하고 축적하는 것은 자본의 필요성이 시급한 가난한 국가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행동이다.”라고 하였다.⁴⁾

아무튼 알제리는 정치적 불안정과 무질서, 폭력과 사회를 짓누르는 실업 및 임금체불 그리고 가계구매력 약화 등으로 사회불만이 고조되어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 J.K. Galbraith, Les Conditions Actuelles du Developpement Economique, Denoel, Paris, 1962, p. 31.

V. 결 론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諸國'의 대표적 국가인 모로코와 알제리는 경제, 사회, 문화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아프리카적이면서 중동적이고 또한 유럽적인 색채가 가미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프랑스 식민통치를 경험하였으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독립을 획득한 모로코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에 7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독립전쟁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독립한 알제리의 경우도 있다.

모로코가 독립 이후 줄곧 친프랑스 및 친서방정책을 택한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하였던 알제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혼란이 극에 달하였으며 농업에 기반을 둔 모로코와 달리 풍부한 석유자원과 천연가스가 부존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외국투자의 유입 없이는 소기의 원하는 공업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상의 문제점은 이웃한 유럽 국가들의 영향으로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고 있다는 점과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쓰고 있다는 언어상의 어려움 외에도 종교적인 영향인 라마단이 외국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너무 유럽적인 분배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보다는 파이를 키워 더불어 잘사는 성장 후 분배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모로코와 알제리 두 나라는 유럽에 진출해 있는 이들 국가 출신들 노동자가 보내오는 외화가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환지중해 국가들, 특히 EU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2천년대에 아프리카 및 중동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I. 저 서

- (1) Aouragh, L., L'Economie Algerienne a l'Epreuve de la Demographie, CEPED, 1996.

- (2) Daguzan, J.F., Etat, Science, Recherche et Developpement Technologique au Maghreb, Economie du Maghreb, CNRS Editions, 1998.
- (3) Dahmani, Ahmed, L'Algerie a l'Epreuve, -Economie Politique des Reformes 1980-1997, L'Harmattan, Paris, 1999.
- (4) Galbraith, J.K., Les Conditions Actuelles du Developpement Economique, Denoel, Paris, 1962.
- (5) Oulalou, F., Apres Barcelone, Le Maghreb est necessaire, Toubkal, L'Harmattan, 1996.
- (6) Sid Ahmed, Abdelkader, Economie du Maghreb, -L'Imperatif de Barcelone-, CNRS Editions, Paris, 1998.
- (7) Weidnitzer, Eva, L'Union du Maghreb Arabe, -Problemes de la cooperation maghebine et la recherche d'un nouveau partenariat avec la CE, IAD, Berlin, 1998.

II. 논문 및 간행물

- (8) Addi, Lahouari, Legitimation et Participation Politique au Maghreb, Universite de Lyon II, Lyon, 1997-98.
- (9) Anderson, R.E. & Martinez, A.,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orld Bank'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Office, 1995.
- (10) CNRS, Annuaire de l'Afrique du Nord, Paris, 1997.
- (11) EIU, Country Report, 2001.
- (12) Larabi, Jaidi & Fouad, Zaim, L'Industrie Marocaine face au Defi du Libre-Echange, Annuaire de l'Afrique du Nord, tome XXXV, CNRS Editions, 1996.

III. 기 타

- (13) parkyh@kiep.go.kr, 2001. 12.

<Abstract>

A Study on the Industrialization of Morocco & Algeria

Si-kyung Kim

The two countries of North Africa, that is, Morocco & Algeria are called often 'Maghreb nations', Islamic ones in common colonized the past by French rule.

They are similar each other not only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 but also to geographic vicinity in company with particularity mixed with Africa, Middle East and Europ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respect of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tructure among them.

Morocco suffers from economic underdevelopment notwithstanding long history and important political position in Africa.

In comparison with pro-French policy adopted by Morocco since independence, socialist Algeria, to make matters worse, i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utter confusion.

As compared with agricultural Morocco, Algeria equipped with abundant crude oil and natural gas is characterized the most unstable country in the region.

However, for the Maghreb nations, there is nothing for it but to rely on remittance from North African labourers working in Western Europe to attain national goal which is economic development.

In these days, before-mentioned two countries make the most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EU members, especially Mediterranean nations for the purpose of doing key role in Africa & Middle East in 21st century.

